

## 미국 축산농가들에 대한 오염 규제 발표

미국의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오염물질 방출허가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환경규제 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의 주원인 사육두수 천마리 이상의 돼지나 소 또는 닭을 사육하고 있는 규모화된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와 기타 오염물질 방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45만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이들 농가로부터 한해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축산분뇨와 기타 오염물질은 14억톤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규제는 축산농가로 하여금 2009년까지 전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등 오염물질 방출을 통제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1,000두이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배출허가를 받아야 축산분뇨와 기타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도축두수 감소세 유지, 가격 상승

3월 2일 현재 미국의 돼지 도축두수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최악의 돈가 폭락의 원인 중에 하나인 높은 도축두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선물 시장의 가격의 경우, 도축두수의 감소와 계절적으로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하여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요즘 경제적 위기에 있는 러시아에 돈육 50,000톤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발표가 선물 시장의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평균적인 미국산 생돈의 가격은 100파운드 당 3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100파운드 당 약 23달러 정도 떨어진 것이다.

## 캐나다 농축산물 수송차 입국 저지

캐나다로부터의 대량 수입으로 미국의 축산곡물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미북부 5개주(노드다코다, 아이다호, 몬타나, 미네소타, 워싱턴)에서 농축산물을 적재한 캐나다 수송차의 미국 진입이 저지되었다.

북부 주의 각 주지사가 생산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질병감염, 사용금지 의약품의 사용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 농축산물을 적재한 캐나다 수송차의 미국 진입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생산자들은 저지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 일본 상반기 비육돈 출하두수 감소할 듯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비육돈의 출하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2월 한달 1%증

가를 제외하면 매달 1~2%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번 발표한 자료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이는 자돈 배합사료 생산량 및 출하량, 작년 여름철 혹서 영향으로 종부, 수태율 저하로 5월과 6월 자돈 생산두수 감소 등 각 현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의 비육돈 출하 두수는 2년연속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 E 유럽 최대 도축조합 데니쉬 크라운 U 탄생

유럽 최대 도축조합인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이 탄생됐다. 이에 따라 유럽 양돈산업은 초대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U 돈육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덴마크의 도축조합 가운데 데니쉬크라운과 후데인으로 널리 알려진 베스크유스크의 합병을 확정했다. EU돈육위원회는 지난달 합병대상인 이들 2개 조합에 몇가지 안을 제시한 조건에 대해 98%가 찬성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합병된 명칭을 데니쉬크라운으로 한 것은 데니쉬가 덴마크를 의미하고 있어 합병의 궁극적인 목표인 “덴마크 돼지고기의 홍보” 이미지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EU 위원회, 성장 촉진 항생물질 사용 금지

EU 농업장관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용 사료에 네 가지 항생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을 채택하면서 이들 항생물질들의 재고량 소진을 위해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사용이 금지되는 항생물질들은 버지니아마이신(virginiamycin),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티로신 포스페이트(tylosin

phosphate) 그리고 bacitracin-zinc 등이다.

## 캐나다 호주의 「돼지고기 관세도입안」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캐나다 정부는 돼지고기 업계와 12월 대 호주 돼지고기 수출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는 작년 11월 25일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이 호주의 돈을 하락시키므로 보호정책 도입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었다. 호주 위원회는 「98년 상반기의 캐나다산 돈육수입이 호주 돈육업계 전체의 수익을 크게 저하시켜 WTO(세계무역기관)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SG) 협정에 관련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호주 정부의 연간 4~5천톤의 수입 범위설정안을 부정하고, 대신 2년간 10% 관세도입을 권유하고 있다.

## 영국 식품안전성 기준 확보위해 식품표준청 설립 추진

영국 정부는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준 확보를 위해 푸드 스탠다드 에어전시(식품표준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개월간 의견수렴을 통해 가까운 기간안에 정식법안으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에이전시 운영자금은 약 1억2천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식품소매점을 비롯해 식품캐터링 업자로부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90만파운드의 과징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대상이 약 51만5천명에 달해 약 4천6백만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충당기로 했다. 한편, 과징금 대상단체들은 징수 대상에 농가,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 돼지 내장 이용 깊은 상처 치료 성공

영국 수의학자들이 돼지의 내장을 이용해 동물의 상처부위 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동물수술실험을 시도,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지난 3월 3일 보도했다. 이 새 치료법은 지금까지 개와 고양이에 시험적으로 시도됐으며 곧 영국에서 시판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 대만 구제역 산발적 발생 계속

일본 축산국 위생과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의 발생에 이어 2월 상순에는 운림현에서, 2월 24일에는 팽호현에서 또 발생했다.

이것은 대만 대만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따른 것으로 운림현에서는 2월 상순에 1개 농장에서 발생해 122두를 살처분했다. 또한 팽호현에서는 2월 24일 1개 농장에서 발생해 617두를 살처분 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발생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의 자위조치를 지시했다.

## 브로일러에 늘리는 돼지고기 소비

대만에서 돼지고기는 식문화 사상 가장 중요한 식육이다. 근래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 향상으로 식육소비는 증가 경향에 있으나,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점하는 비율은 크다. 96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지육환산기준)은 40.6kg으로 86년의 34.7kg에서 17.0% 증가하고 있으나, 식육소비 전체에 점하는 비율은 86년 61.1%에서 96년은 54.1%로 7% 낮아졌다.

전체 식육소비가 증가하면서도 돼지고기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집오리, 오리 등을 포함한 가금육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금류의 소비는 10년간에 19.8kg에서 30.5kg

으로 54.0%나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율은 돼지고기 증가율 1.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 호주 수직성 악화 도축장 위기 확산

호주의 도축장들이 생축값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블레이니 지방에 위치한 앤즈코사의 블레이니 도축장의 최근 폐쇄로 육류산업과 축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군다갈 육가공장은 작업량이 절반으로 감축했다. 이같은 현상은 생축가격이 비싼데다 공급마저 부족, 수익성 악화가 주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체코 EU산 돈육 수입에 대한 협의

체코정부는 지난 12월 1일 EU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서 EU위원회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는 '98년 후반부터 싼 가격의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체코의 돼지생산업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의는 체코가 EU에 대하여 일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그 결과로 EU 돈육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체코와 헝가리 등 중·동유럽에 대하여 돼지고기의 수출보조금을 인하할 것으로 결정하고 사실상 체코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EU의 지육과 부분육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지금까지의 40ECU(약 6백2십만원)에서 20ECU(약 3백만원)가 적용된다. 이 결과 향후 돼지고기 무역에 관련한 중·동유럽과 EU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돈**